
		보도참고자료		
		배포일시	2018. 12. 10(월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인, 사무관 이형주 • ☎ (044)201-4600, 4603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KTX 강릉선 복구 완료 및 열차운행 재개

김정렬 차관 복구 후 첫 운행열차 탑승·열차안전운행 확인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0일 새벽 4시 17분에 KTX 강릉선을 복구 완료하였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10일 새벽 5시 30분부터 정상적으로 열차운행이 이뤄졌다.
 - * (강릉선 탈선사고) 12월 8일 토요일 07:35분경 KTX 제806열차(강릉발~서울행)가 탈선하여 강릉-남강릉역 간 모든 KTX 열차가 운행중지됨
 - 한국철도공사는 10일 새벽 4시 17분에 시설과 선로를 복구완료하였고, 새벽 5시 20분까지 선로와 신호상태 점검 및 시험운행을 거쳐 사고 선로의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.
- 국토교통부 장관이 열차운행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도록 당부함에 따라 김정렬 차관은 직접 시험운행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구간의 안전운행을 확인하였고,
 - 사고 복구 이후 처음 운행되는 열차(강릉발-서울행, 05:30분 KTX 제802열차)에도 탑승하여 사고구간 열차운행 안전을 최종 확인하였다.

- 김정렬 차관은 “KTX 강릉선 운행중단으로 국민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”면서, “빠른 시일 내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현장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(☎ 044-201-4603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